

정부는 노사 모두 대화하고 협의 중이며, 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겠습니다.

1. 관련 기사

- 11.21.(금) 조선일보, “정부, 사측은 빼고 ‘노정협의체’ 만든다”,
문화일보, “이번엔 使 빼고, ‘노정협의체’...勞 편향 도 넘는 李 정부”

- ...노정협의체까지 발족하면 경영계 의견이 전달되기가 더 어려워 질 것...
- ...노정 직접 대화는 노사정위를 정부 스스로 부정하는 셈이 된다. 더구나 국회의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, 더불어민주당의 태스크포스 등 노동계의 목소리를 반영할 통로는 이미 충분...

2. 설명 내용

- 정부는 실 노동시간 단축, 퇴직연금 개선, 고용보험 개선, 개정 노조법 제2·3조 현장안착 등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해 노사 모두가 참여하는 회의체*를 통해 논의 중임

*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(9월~), 퇴직연금 노사정 TF(10월~),
고용보험 제도개선 TF(11월~), 노조법 2·3조 개정 현장지원단(9월~) 등

- 이와 더불어, 노동계-정부 뿐만 아니라, 경영계-정부 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 중임
- 향후 정상화된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핵심 노동시장 의제에 대해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복원 및 활성화할 계획임

담당 부서	노동정책관 노동정책총괄과	책임자	과 장	이부용 (044-202-7740)
		담당자	사무관	박보경 (044-202-7746)